

### 38. 왜 2300 주야인가?

2012. 9. 16.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2300주야까지라고 한 예언 연대와 그 시작이 언젠가 하는 것을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그런 연대를 주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귀 기울여 잘 들으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김영진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김목사님 전화는 626-497-8199입니다.

[압3:7,8]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8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2300 주야와 70 이레에 대하여 자세히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하는 연대가 기원전 457년이라는 것도 확인되었고요. 벰전 1:10~12 말씀이 그 연대를 이해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성전 재건하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도 새로 번역한 성경들이 에스라 8:36을 번역하면서 확인이 되었고요. (예,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리고 또 70 이레 기간 즉 490년 안에 성취되어야 하는 사건들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시고 선하십니다. 그 기간 안에 메시아가 오시고 죄를 처리하시고 영원한 의를 드러내신 사건은 예수님 사건에서 기가 막히게 성취되었네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70 이레는 그렇게 되었는데, 2300년은 70이레가 끝나고도 1810년이나 지나야 될 일인데,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왜 2300년을 말씀하셨을까요?

답: 이제 그 이유도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 사건으로 찾아보아야 하겠지만 지난 시간에 70 이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70이레의 시작이 언젠가 하는 문제를 설명하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70이레 전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못한 것 같거든요.

2. 그러면 그 설명부터 듣고 앞의 질문 대답을 듣기로 하지요.

답: 70이레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메시아가 일어날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납니다. 7이레는 49년이지요. 62이레는 434년입니다. 표상적 예언 연대는 역사적 연대로 1일이 1년으로 계산하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네요. 현대인의 성경이 바로 그렇게 번역했는데 한 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9:25,26절 전반부만 읽어보지요.

[단9:25,26] 이제 너는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하나님이 택한 왕이 오실 때까지 49년과 434년이 지날 것이며 그 49년 안에 예루살렘의 거리와 성벽이 재건될

것이나 그 때는 어려움을 당하는 때이다. 26 그리고 예루살렘이 재건된 때부터 434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 죽임을 당할 것이며.

1일 1년 원칙으로 번역을 했지요. 여기 번역한 대로 457년부터 49년 동안 예루살렘 시가지가 정비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408년까지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인데,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께서 기름부음을 받을 때 까지 434년이 된다는 말인데 그때가 기원 27년입니다. 예수께서 그때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부었습니다. 이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습니다. 70이레 곧 490년 중에 69이레 즉 483년이 지난 것입니다. 나머지 한 이레 곧 7년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3. 그렇군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서기 연대는 예수님 탄생한 해를 원년으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예)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께서 30세에 침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왜 기원 27년에 침례를 받았다고 하지요?

답: 목사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서기 연대를 처음 계산한 분이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로마건국기원 754년에 예수께서 탄생했다고 고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건국기원 754년을 AD 원년으로 했지요. AD는 라틴어 Anno Domini(아노 도미니, 혹은 도미나이)의 약자로 도미니(주님) 아노(후)라는 말이지요. 즉 주님 예수 탄생하신 후라는 말인 것을 다 아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1200년대에 로저 베이컨이 예수님 탄생할 때 유대 왕이었던 헤롯이 로마건국기원 760년에 죽었다는 역사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기 연대는 진짜 예수님 탄생한 해보다 한 4년쯤 늦지요. 그래서 예수님 침례 받은 30세 때의 연도가 기원 27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30세에 침례를 받으셨는데, 왜 기원 27년인지 설명이 되었습니까?

4.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셔야 하겠습니다.

답: 다니엘 9:25,26에는 62이레가 지난 후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지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 어느 때에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중봉사를 3년 반 정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유월절을 4번 맞이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봉사 기간이 3년 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니엘 9장 26절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다고 했지만 정확한 때는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뵤전1:10~12에는 고난 받으실 시와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고 했는데, 예수의 고난의 때와 관련하여 예언한 것은 70이레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고난의 때와 시에 대한 예언이 이곳에 있어야 하지요. 그것이 27에 있습니다. 단9:26,27을 한 번 읽어보지요.

[단9:26,27] 육십이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여기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했지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70이레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6절에 보면 “육십이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고 했지요. 즉 메시아가 끊어진 후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는데요,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여기 한 왕을 적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장차라고 한 것을 말세라고 해석하고 그리고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고 했는데, 여기 장차도 26절의 장차와 같은 말세로 보고, “그가”라고 한 “그”를 한 왕이라고 해석하지요. 이 한 왕인 그가 바로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폐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때를 소위 7년 대환난 기간이라고 설명하면서 7년 대환난 기간의 전 3년 반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를 베풀며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다가 듣지 않으니 3년 반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한다고 해석하였지요. 요즘도 그런 해석을 유지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장로교회에 교인으로 있을 때 배운 내용이거든요. 아마도 넬슨 달비나 스코필드 같은 분들이 그런 해석을 주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70이레 중에 69이레는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역사적 사건인데 마지막 한 이레는 69이레 다음에 뚝 떨어져서 70이레 전체 기간보다도 훨씬 긴 세월이 지난 후에 말세에 7년이 된다는 것은 70이레 예언에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2300주야에서 떼어낸 것인데, 그 기간보다도 더 긴 세월 후에 7년 대 환난에 해당되는 기간이라는 것은 전혀 논리적 타당성도 없지요. 또 27절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한 “금지”라는 말이 “샤바트”인데 안식하게 한다, 쉬게 한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에 대하여 안식하게 한다는 말이니까 더 이상 제사와 예물을 드릴 일이 없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또 대명사 그의 선행사를 26절에서 찾아야 하는데, 26절의 “한 왕”은 27절의 “그”의 선행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한 왕은 주격이 아닙니다. “그는” 주격이잖아요. 한 왕은 백성을 수식하는 관형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26절의 한 왕이 27절의 그의 선행사가 될 수 없으니 문법적으로도 해석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할 때 27절에 “그”에 대한 선행사를 26절에서 찾으면 그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장차라는 말은 메시아가 오실 때를 가리키지요. 26절의 장차는 메시아가 끊어진 후를 가리키고요. 메시아가 7년 간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언약을 굳게 정한다는 것은 히브리 문장이 새로 언약을 맺는다는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있는 언약을 굳게 한다는 문장이지요. 창세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된 그 언약을 굳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언약은 성소제도와 제사제도를 통하여 계속 이스라엘에게 상기시킨 그 언약입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허물을 마치고 죄를 끝내며 죄악을 영원히 속하고 영원한 의를 드러내는 그 언약을 성취시킬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일이 나머지 7년의 절반 곧 69이레 다음의 한 주일의 절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이지요. 예수께서 공중

봉사하실 3년 반 기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3년 반이 되었을 때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메시아의 대속적 죽음을 계속 가르쳐온 모든 언약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필요없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사바트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쉽지 않는 내용을 너무 길게 말했나요?

5. 설명이 좀 길기는 했지만 귀를 기울여 들으면 바르게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애청자들께서 좀 어렵게 느껴지면 요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결국 장차 많은 사람과 언약을 맺는 “그”는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이며,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역사적 연대로나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었지요. (예) 애청자들께서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년인데 나머지 3년 반은 어떻게 됩니까?

답: 목사님, 긴 이야기를 요약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70이레 기간이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위한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한 이레도 유대인을 위한 기간인데, 절반까지는 메시아가 유대인을 위하여 직접 일하는 기간입니다. 그 절반 되었을 때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지게 되니까.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니까 세상에 계시지 않지요. 그래서 나머지 3년 반은 그 제자들이 유대인을 위하여 봉사합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완강히 거절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굉장히 핍박하지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복음이 유대지경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이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즉 유대인을 위한 70이레의 특별 은혜 기간이 끝났다는 것이지요. 스데반이 순교한 때가 AD 34년으로 70이레의 마지막 해가 됩니다. 예언이 정말 기막히게 성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한 왕의 백성 로마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였고 성전을 불살랐습니다. 참 장엄하지 않습니까? 역사의 파노라마가 다니엘 9장에 70이레라는 표상적 연대 예언으로 잘 계시되었고 역사에서 기가 막히게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4절에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라는 말씀의 성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야 할 내용입니다.

6. 지난 시간 했어야 할 내용이 참 많았네요.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왜 2300주야까지 라는 기간을 말씀하셨는지 설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 성경 예언의 성질에 대하여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언의 성질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예언은 예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은 예정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예언은 하나님께서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역사의 진행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의 백성들이 그 역사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겪을 것인지 미리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베푸신 자비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지 않아도 그런 일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또 예언하셔서 그 예언을 잘 듣고 주의하면 예언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될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질로 그런 행사로 진행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미리 말씀하셔서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자비로 예언하신 것도 많습니다. 시

간관계로 그런 사건을 설명할 수 없지만요. 언젠가 이 시간에 그런 사실을 강론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강론을 계속 들으신 애청자들 중에는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300년이라는 세월을 예언하신 것은 그만한 세월이 흘렀을 때 어떤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 연대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루살렘 중건명령이 날 후부터 2300년이 지날 때 구원의 사업이 진행되는 중에 어떤 중요한 전환점이 생길 것을 보신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성소가 정결하여지는 일이라고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7. 성소가 정결하여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말씀하셔야 하겠습니다. 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답: 오늘에 사는 사람들은 옛날이 어떠했는지 잘 모르지요. 역사책이나 유물들을 보고 전문가들이 해석한 것을 통하여 짐작하는 것뿐이지요. 그것이 정말 해석한 그대로였는지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옛날 시대를 지금의 잣대러 재면서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문자와 책에 대하여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지요. 그러나 기원 5세기경에는 온 세계 인구 중에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5% 정도였다고 합니다.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그 수가 좀 늘어났고요, 17,18세기가 되면서 계몽운동이 일어나고 민중들도 읽고 쓰고 셈하기 보급이 일어나서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읽기, 쓰기, 셈하기 운동을 영어로 3R 운동이라고 하는데, Reading, Writing, Reckoning 의 첫 발음을 따라 그렇게 말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시대가 지나면서 글을 읽고 쓰는 인구가 대폭 증가했지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던 성경말씀을 이제는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는데, 읽을 수 있는 책이 희귀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책을 구하여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는데 특히 성경이 그랬습니다.

8. 읽고 쓰고 셈하게 된 것과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여진다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답: 저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제 말을 수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곧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교회 지도자들이 강론하고 주장하는 것이 성경의 계시와 온전히 일치하는지 성경 자체로 검토해서 확인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성경이 직접 가르치고 있지요. 딤후2:15을 한 번 읽어보시지요.

[딤후2:15]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지요. 행17:11을 읽어주시겠습니까?

[행17:11]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12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감사합니다. 옛날 뵈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무조건 수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들은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일일이 살폈습니다. 그래서 확인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이 설교를 듣고 그것을 끝입니다. 설교자가 영터리로 말해도 그렇거나 한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되면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진리를 따라 신앙생활 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인은 되었겠지만 진리의 사람은 안 됩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려면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너무 비싸서 서민들은 성경을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를 뽑내는 일이 되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읽고 쓰고 셈하는 것을 잘 해도 성경 연구는 여전히 지도자들만의 몫이었지요. 성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합니다.(정말 그렇겠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값싸게 누구든지 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십니다. (어떻게요?)

영국 웨일즈 지방 서해안 지방 빈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성경 이야기를 들은 메리 존스라는 소녀는 10살 때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자 성경을 직접 읽어보기를 원하는 중에 책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6년을 일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빨라 지방에 있는 찰스 목사님이 웨일즈 성경을 판다는 것을 알고 30Km를 걸어서 목사님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은 다 없어졌습니다. 낙심한 메리가 우는 것을 보고 찰스 목사님은 자기 성경을 메리에게 주고, 그는 1802년에 런던에서 열린 기독교 책자 협회에서 메리 존스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모든 회원들이 감동을 받아 성경을 쉽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의논이 되어서 1804년 3월 7일에 대영성서공회가 설립되었고, 성경을 대량으로 출판하게 되었지요. 그 후로 화란 성서공회 러시아 성서공회 미국 성서공회 등이 잇따라 설립되면서 성경이 대량 출판되고 값도 싸져서 누구든지 쉽게 싸게 성경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원하기만 하면 성경을 구입하여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여지는 일이 있을 것인데 그때 땅에 떨어져 밝힌 진리가 회복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다니엘 8:13,14에 기록되었지요. 한 번 확인하지요.

[단8:12~14]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13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14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여지는 일이 어떤 일인지 잘 말씀해주지 않습니다. 10절부터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8장을 공부할 때 아마도 설명했을 것입니다. 작은 뿔이 성소를 헐고, 타미드를 자기가 차지하고 진리를 땅에 던졌는데 그것이 정결해지는 때가 언제인가 하나 2300주야까진데 그때 성소가 정결하여진다고 대답한 것이거든요. 성소가 정결해지는 데에는 진리가 회복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회복되려면 진리를 연구하는 일이 필수적이지요.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지요. 1804

년에서 그 여건이 조성되는 첫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40년이 되는 해가 2300주야의 끝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40년이 성경에 기록된 연수로는 한 세대입니다. 성경을 쉽게 싸게 구하여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지 한 세대가 되었을 때 성소정결 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역사적 진행을 이미 다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 끝에 성소정결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9. 성소정결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말씀을 들어야 하겠는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은 마치시지요.

기도: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종말을 다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예언으로 길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이 쉽지 않지만 애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총명을 주시옵시고 깨달아 바른 진리를 따라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에 넉넉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